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 위로연' 메시지

오늘은 한국전 정전협정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미국 워싱턴에서 참전용사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는 비록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전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전몰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평화의 길목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강국,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의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발전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전 이후 처음 남북 장성

급 군사회담이 열리고 비무장지대의 비방방송도 중단되었습니다. 개성공단 건설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려하는 북핵문제도 6자회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반세기를 이어온 한·미 동맹은 매우 굳건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산증인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